하원의원 출마

링컨이 하원으로 출마했을 때였다. 합동 유세에서 그의 라이벌 후보는 링컨을 신앙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리고 청중을 향해 이렇게 외쳐댔다.

"여러분 중에 천당을 가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들 모두가 손을 들었다. 그러나 링컨만은 손을 들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링컨을 향해 소리쳤다.

"링컨, 그러면 당신은 지옥으로 가고 싶다는 말이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웃으며 군중을 향해 외쳤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천당도, 지옥도 가고 싶지 않소.
나는 지금 국회의사당으로 가고 싶소."